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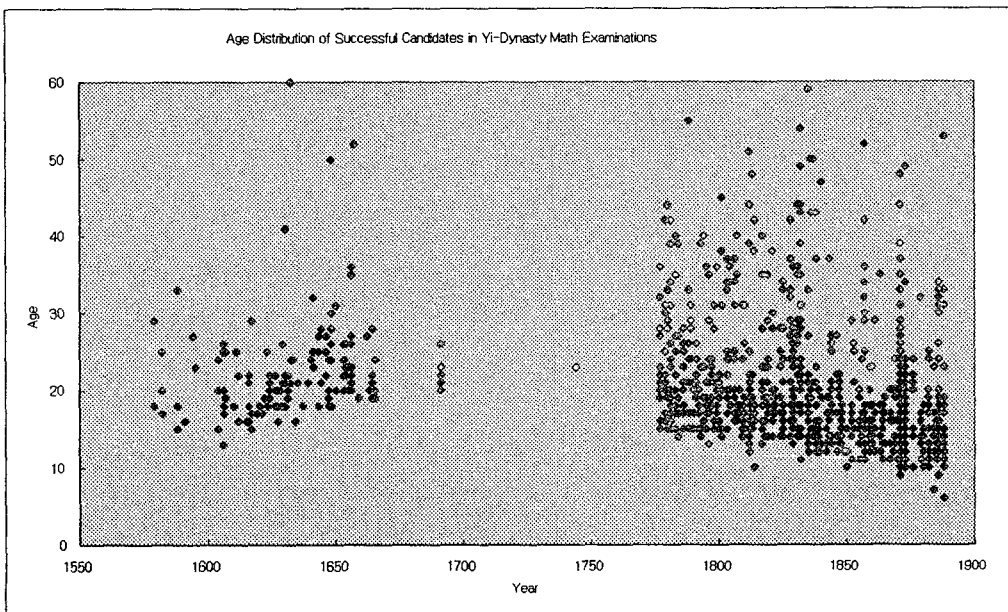
차 종 천 (성균관대학교)

조선시대 산과합격자들의 사회이동과 배우자 선택

산과를 비롯한 잡과 합격자 자료들은 문·무과의 그것들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를 파악하는데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다. 그와 같은 자료들은 특히 합격자 본인의 성명, 출생년도, 관직, 품계 등과 그의 사조--즉, 부, 조부, 증조부, 외조부--및 장인--물론 기혼자의 경우에 한해서--의 성명, 관직, 품계 등과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그들의 사회이동과 배우자선택을 조사하기에 적합하다. 이 글은 이성무·최진옥·김희복 편 (1990), 「조선시대 잡과합격자 총람」의 산과합격자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얻은 자료에 대해서 주로 사회이동과 배우자선택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것으로서, 기본적으로, 우리 전통사회의 산학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. 이 글의 주요 발견들과 그것들을 기초로 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.

(1) 산과합격자들의 합격연령은, 18세기 이전에는, 1세기에 4.2세의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, 18세기 말엽부터는 그와 같은 추세가 바뀌어, 오히려 1세기에 5.2세의 비율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.

<그림 3-1> 조선시대 산과합격자들의 연령분포: 1568-82, 1588, 1591-1665, 1691, 1777-1888



(2) 회귀분석의 결과는, 적어도 1777년 이후에는, 상급 산학자들의 자식들과 하급 산학자들의 자식들은 비산학자들의 자식들에 비해서 각각 3.9세와 5.1세씩이나 일찍이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.

<표 3-2> 산과합격자의 합격시 연령을 부친의 관직 가변수들에 회귀시킨 ANOVA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모수추정치

모수	영조이전 (-1776)	정조 (1777-1800)	순조 (1800-1834)	헌종 (1834-1849)	철종 (1849-1863)	고종 (1863-1888)
d1	-.103	-1.909	-4.953**	-6.837**	-8.033**	-2.186**
d2	1.108	-3.837**	-6.266**	-7.533**	-3.732	-4.660**
절편	22.480**	24.514**	26.879**	24.737**	23.273**	20.566**
R <sup>2</sup>	.01	.03	.08	.10	.13	.06

d1: 상급 산학자 (동추, 첨추, 정, 판관, 별제, 주부, 인의, 교수) = 1, 나머지 = 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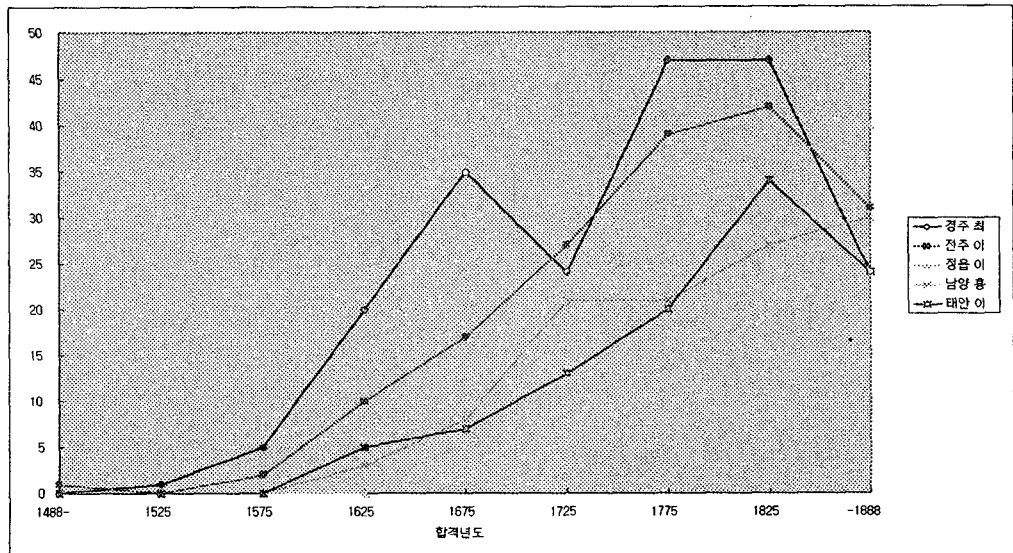
d2: 하급 산학자 (계사, 훈도) = 1, 나머지 = 0

\*\* .05 수준에서 유의미

(3)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, 산과합격자들은 매우 제한된 수의 성/본관 으로부터 충원되었다.

(4) 그리고, 산과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과점적인 우위를 보여 온 성/본관 출신의 합격자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.

<그림 3-2> 산과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5대 성/본관 출신 인원수의 변화 추이: 1488-1888



(5) 산과합격자들을 배출한 주요 성/본관들은 또한 그들의 외가와 처가의 성/본관 가운데에서도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난다.

<표 3-3> 산과합격자 본인, 외가 및 처가의 성/본관별 합격자 배출 도수와 순위

성/본관	본인	외가	처가
경주 최	203( 1)*	143( 2)	101( 2)
전주 이	169( 2)	145( 1)	123( 1)
정읍 이	123( 3)	63( 5)	57( 6)
남양 홍	110( 4)	84( 3)	61( 3)
태안 이	103( 5)	65( 4)	60( 5)
주계 최	82( 6)	44( 7)	35( 9)
협천 이	64( 7)	13(27)	24(16)
경주 이	59( 8)	63( 5)	61( 3)
신평 한	57( 9)	37(10)	30(12)
천영 현	45(10)	33(12)	43( 7)
풍양 윤	40(11)	43( 8)	28(13)
경주 김	38(12)	43( 8)	38( 8)

\* 괄호 안 숫자는 순위

(6) 산과합격자를 자신들에게 있어서, 세대간 관직이동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아도 좋을 듯한 양상을 보여준다. 그러나, 그들의 부계 선조들의 경우에는, 그와는 반대로, 세대간 이동이 출발신분과 도달신분 사이에서 대칭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.

<표 4-1> 산과합격자 본인, 부친의 세대간 관직이동

① 부친-본인간 관직이동

		본인의 관직			합계
		I	II	III	
부친의 관직	I	165	360	77	602
	II	98	337	106	541
	III	92	270	122	484
합계		355	967	305	1627

② 조부-부친간 관직이동

		부친의 관직			합계
		I	II	III	
조부의 관직	I	282	238	122	642
	II	135	208	63	406
	III	185	95	299	579
합계		602	541	484	1627

<표 4-2> 산과합격자 본인, 부친의 세대간 관직이동표 자료들에 대한 대칭, 의사대칭, 주변동질성, 독립, 의사독립 모형들의 적합도

① 부친-본인간 관직이동

모형	d.f.	G <sup>2</sup>
(1) 대칭	3	234.68
(2) 의사대칭	1	5.94
(3) 주변동질성 (= (1)-(2))	2	228.74
(4) 독립	4	38.02
(5) 의사독립	3	17.30
(4)-(5)	1	20.72

② 조부-부친간 관직이동

모형	d.f.	G <sup>2</sup>
(1) 대칭	3	48.36
(2) 의사대칭	1	6.31
(3) 주변동질성 (= (1)-(2))	2	42.06
(4) 독립	4	249.48
(5) 의사독립	3	89.99
(4)-(5)	1	159.49

(7) 1488-188년 기간을 15개로 나누었을 때, 얻어진 일련의 세대간이동표들에다 시기의 차원을 덧붙여서 구성된 3차원 교차표에 대하여 독립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시기들을 6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. 즉,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850-1888년을 첫째 범주로 삼았을 때, 수준 크기의 내림차순으로 둘째를 1775-1849년, 셋째를 1675-1724년과 1750-74년, 넷째를 1625-74년과 1725-49년, 다섯째를 1488-1524년과 1575-1624년, 그리고 여섯째를 1525-74년으로 삼는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.

(8) 산과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성/본관 출신의 합격자들과 부친들 사이에서는 족내혼의 경향이 부드러워지는 해도 식별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다. 특정 성/본관들 사이에서는 혼인이 무작위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다. 이러한 경향은, 낮은 성/본관 족외혼 비율과 더불어, 산과합격자 배출 순위 상의 상위 성/본관 출신들 사이에 일종의 사회적 폐쇄(social closure)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.

<표 5-2> 산과합격자와 부친의 성/본관별 배우자선택표 자료들에 대한 대칭, 의사대칭, 주변동질성, 독립 모형들의 적합도

① 산과합격자의 성/본관별 배우자선택

모형	d.f.	G <sup>2</sup>
(1) 대칭	78	368.33
(2) 의사대칭	66	71.13
(3) 주변동질성 =(1)-(2)	22	297.20
(4) 독립	143	281.93

② 부친의 성/본관별 배우자선택

모형	d.f.	G <sup>2</sup>
(1) 대칭	78	334.58
(2) 의사대칭	66	147.67
(3) 주변동질성 =(1)-(2)	22	186.91
(4) 독립	143	410.19

<표 A-2> 산과합격자의 성/본관별 배우자선택표 자료에 독립모형을 맞추었을 때의 관찰값과 기대값의 비

		처의 성/본관												
		I	II	III	IV	V	VI	VII	VIII	IX	X	XI	XII	XIII
본인의 성/본관	I	-	1.56	.98	1.44	1.73	.68	1.33	1.05	1.86	.74	.57	1.05	.96
	II	1.14	-	1.18	1.57	.64	1.37	1.20	1.10	.32	.67	1.37	1.77	1.06
	III	1.05	1.50	-	1.30	2.20	1.51	3.29	1.51	3.07	.92	2.35	1.39	.67
	IV	1.90	.84	1.81	-	1.72	1.68	.61	1.69	1.47	.68	1.05	.00	.88
	V	1.25	1.28	1.38	.52	-	1.35	1.97	1.29	1.57	1.46	.56	.83	.94
	VI	1.18	1.13	.69	1.30	.66	-	.00	1.29	.00	1.38	.70	1.56	1.03
	VII	1.76	.62	2.22	1.66	1.69	.72	-	.00	.84	2.35	.90	.67	.87
	VIII	1.09	1.79	.48	.90	.92	1.57	1.14	-	1.83	1.28	.98	2.17	.89
	IX	2.26	.46	1.00	.93	1.42	.81	.00	.93	-	.66	2.03	1.49	.95
	X	.71	1.47	1.26	.00	1.20	.00	.00	.00	.00	-	.00	1.89	1.20
	XI	1.21	1.98	.00	1.99	1.35	1.16	.00	1.99	1.35	.94	-	1.06	.80
	XII	1.69	.69	1.50	2.80	1.42	4.87	.00	1.40	.00	.99	.00	-	.76
	XIII	.80	.88	.92	.66	.46	.62	.77	.81	.51	1.08	.99	.65	1.15

(9) 한편, 관직을 기준으로 한 산과합격자와 부친의 배우자선택표들 모두에 대해서는, 의사대칭모형과 의사독립모형이 상대적으로 나은 적합도를 보여준다. 그러나, 산과합격자의 배우자선택표에 대해서와는 달리, 부친의 배우자선택표에 대해서는, 대칭모형의 적합도가 꽤 좋게 나타난다.

<표 5-3> 산과합격자와 부친의 관직범주별 배우자선택표

① 본인의 배우자선택: 부친과 장인의 관직

		장인의 관직			합계
		I	II	III	
부친의 관직	I	207	125	270	602
	II	145	110	286	541
	III	116	50	318	484
합계		468	285	874	1627

② 부친의 배우자선택: 조부와 외조부의 관직

		외조부의 관직			합계
		I	II	III	
조부의 관직	I	269	154	219	642
	II	132	117	157	406
	III	183	61	335	579
합계		584	332	711	1627

<표 5-4> 산과합격자와 부친의 관직범주별 배우자선택표 자료들에 대한 대칭, 의사대칭, 주변동질성, 독립, 의사독립 모형들의 적합도

① 본인의 배우자선택: 부친과 장인의 관직

모형	d.f.	G <sup>2</sup>
(1) 대칭	3	247.79
(2) 의사대칭	1	11.39
(3) 주변동질성 (= (1)-(2))	2	236.40
(4) 독립	4	55.06
(5) 의사독립	3	20.08
(4)-(5)	1	34.98

② 부친의 배우자선택: 조부와 외조부의 관직

모형	d.f.	G <sup>2</sup>
(1) 대칭	3	48.68
(2) 의사대칭	1	18.55
(3) 주변동질성 (= (1)-(2))	2	30.13
(4) 독립	4	101.63
(5) 의사독립	3	35.92
(4)-(5)	1	65.71